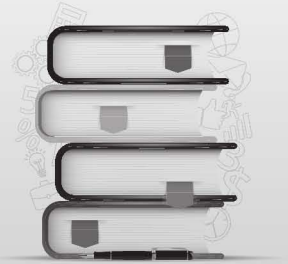


제15차 한중일 IT 표준협력회의 (CJK-15)

이근구 TTA 표준화본부 본부장
임희성 TTA 표준화본부 표준확산부 선임연구원



1. 머리말

한중일 IT 표준협력회의(CJK IT Standards Meeting)는 2002년 6월 TTA 제안으로 최초 개최되었으며, 한중일 3국의 민간표준화기구(한국-TTA, 중국-중국통신표준협회(CCSA), 일본-일본전파산업협회(ARIB), 일본정보통신기술위원회(TTC)) 간 정보통신 분야 현황에 대한 정보공유 및 지역적, 국제적 표준화 업무의 공동대응 및 표준화 분야 상호 이익과 꾸준한 발전을 위한 표준화 기관 간의 상호 지원을 장려하여 협력강화를 이루는 목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금년 제15차 한중일 IT 표준협력회의는 중국 CCSA의 주최로 지난 8월 2일부터 4일까지 3일간 중국 시닝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한중일 IT 표준협력회의에서는 한중일 3국의 민간표준화기구 대표 및 한국의 삼성전자, 일본의 NTT, 도시바, 중국의 화웨이 등의 산업체 전문가 등 총 80여 명이 참여하여 IMT, 정보보호(IS, Information Security), 무선

전력전송(WPT, Wireless Power Transmission) 분야를 중심으로 3국 간 표준화 추진 현안을 공유하고 협력방안을 모색하였다. 또한, ICT 기술 표준화 환경변화에 맞추어 표준화기관이 나아가야 할 방향 등 기관 차원의 이슈에 대한 협력방안 논의도 진행하였다. 본고에서는 이번 15차 한중일 IT 표준협력회의의 주요이슈 및 결과를 소개하기로 한다.

2. 주요 회의 내용

2.1 기관차원 이슈에 대한 전략적 협력 강화키로

금번 회의에서 한중일 표준화 기관들은 매우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ICT 환경에 따라 표준화기관의 선제적 전략 방안 마련이 필요함에 동의하며, 기관 차원의 이슈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였다. 중국은 2015년 3월 발표된 중국의 국가표준화체계 개선을 위한 개혁방안¹⁾을 소개하며, 한국과 일본의 사례를

1) 표준화 개혁방안은 시장의 역할을 강조하고 정부의 간섭을 축소하는 시진핑 지도부의 경제 개혁 방안 등 표준화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6가지 방안을 수립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5개년(2016-2020) 국가표준화시스템 발전계획을 진행하고 있다.

통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고, 일본의 경우는 회원사 증진 방안에 대한 고민을, 한국은 표준 활용도 향상 방안에 대한 이슈 등을 공유하고 논의하였다. 이에, 삼국의 표준화기관들은 이러한 국가 차원 및 국제적인 표준화 환경변화가 기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정보공유 및 대응방안 논의가 지속적으로 필요할 뿐만 아니라, 5G, IoT 등의 주요 ICT 이슈에 대해 전략 차원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고, 협력분야 결정을 위한 논의를 계속하기로 하였다.

또한, 좀 더 효율적인 기관 차원의 이슈 논의 및 비용적인 측면에서의 효과를 위해 본 총회에 대한 재구성에 대해 논의가 진행되었다. 차기 회의부터는, 먼저 총회와 이미 총회 외에 별도로 2~3회 개최되고 있는 작업반 회의를 분리하여 개최하고, 회의 기간은 3일에서 2일로 줄여 진행하기로 하였다. 각 작업반의 활동 보고 절차, 참석자 수 등의 내용은 추후 전화 회의 등을 통해 논의할 예정이다.

본 변화를 통해 전략적인 대응방안 협의 및 보다 심층적인 협력을 강화하여, 국제 표준화 분야에서 한중일 IT 표준협력 회의의 영향력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2.2 IMT, 정보보호, 무선전력전송 작업반 회의 결과

IMT 작업반에서는 각국의 5G 이동통신 표준화 현황 공유 및 5G 성능요구사항/평가 방법론 등에 대해 논의하였고, 오는 10월에 있을 ITU-R WP5D 회의에 제안할 CJK 공동기고문을 마련하였다. 또한, TTA는 VoLTE 관련 AWG(아태지역무선그룹)에서의 신규 보고서 개발을 제안하여, 추후 서로 간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논의할 것을 결정하였다.

무선전력전송 작업반에서는 무선충전전력전송기술 서비스 및 응용에 대한 한중일 공동기고문을 9월에 개최되는 AWG(아태지역무선그룹)에 제출하기로 합의하였고, 한중일 3국뿐만 아니라 글로벌 무선

전력전송 시장 확대를 위해 3국이 공동 개발 중인 CJK 무선전력전송 기술 보고서의 4차 개정안의 검토를 진행하였다. 본 보고서는 내년 ITU-R SG1 및 AWG 회의 제출을 목표로 지속적으로 협력할 예정이다.

정보보호 작업반에서는 IoT 보안 및 프라이버시 관련 ITU-T SG 17의 활동 방향 및 IoT 디바이스의 보안 평가에 대한 논의가 집중되었고, 한국의 클라우드 보안 인증 기준도 소개되었다. 특히, TTA의 제안으로 생체신호 기반 인증 기술을 ITU-T 표준으로 제안하기로 했으며, ISO/IEC JTC1 보안 분야를 협력범위에 포함하기로 합의하였다.

3. 맺음말

2016년 제15차 한중일 IT 표준협력회의는 기술 분야뿐만 아니라 기관 차원의 이슈에 대한 논의를 통해 보다 긴밀한 협력 및 공조 체계의 중요성에 동의하여, 표준화 기관 차원의 전략적 협력을 더욱 강화하기로 합의하였다. 앞으로, 총회 개편과 전략적 분야에 대한 협력 강화를 통해, 국제표준화 분야에 있어서 영향력 있는 회의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해본다. 차기 16차 한중일 IT 표준협력회의 회의는 2017년 8월 말 경, TTA의 주최로 한국 제주도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